

본 문제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동국대학교에 있습니다.
본교의 서면 허락없이 무단으로 출판, 게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국대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Ⅱ)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

성 명 :

◆ 답안 작성시 유의 사항 ◆

- ◇ 각 문제의 답안은 배부된 OMR 답안지에 표시된 문제지 번호에 맞춰 작성하시오
- ◇ 각 문제마다 정해진 글자수(분량)는 띄어쓰기를 포함한 것이며, 정해진 분량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 ◇ 답안지의 수험번호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시오.
- ◇ 답안은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오.(연필 사용 가능)
- ◇ 답안 수정시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하시오.(연필, 지우개 사용 가능)
- ◇ 답안지 본문과 여백에 성명, 수험번호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어떤 내용 또는 불필요한 표시를 하면 감점 처리합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등이 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신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옳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태도이다. 자신들의 생활 양식을 가장 좋은 것으로 보고, 그것과 다른 것을 나쁜 것, 열등한 것으로 보는 성향이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소속감이나 자부심을 고무시켜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이해로 문화 간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자기 문화의 우수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다른 문화를 무시하거나 배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 문화의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게 한다.

반면 문화 상대주의는 자신이 속한 문화가 다른 집단의 문화보다 열등하며 특정 국가나 민족의 문화는 자국의 것보다 우수하거나 세련되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문화를 무조건 추종하는 태도이다. 이와 같은 문화 상대주의는 선진 문물의 수용으로 문화 발전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나칠 경우 자칫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하여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문화 상대주의는 모든 문화는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모두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 즉 문화의 내용은 누구나 공유하는 보편적인 것은 아니며 각각의 인간 집단이 처해 있는 특수한 환경, 또는 주변의 다른 집단과 교류하면서 오랜 기간에 축적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어떤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그 문화가 생겨난 특수한 사회적 상황이나 배경,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 간에는 열등하거나 우월한 것을 평가할 수 없으며, 한 문화에 대한 평가는 그 문화 자체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태도이며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윤리와 이상의 측면에서 문화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태도이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나] 아시아 각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새로운 모계 사회의 시조가 되는 여인도 있을 것이다. 시어른이나 남편으로부터 밀려나 방외인으로 살아가는 여인도 있을 것이다. 가난한 송출국에서 잘사는 유입국으로 이주해서 자본주의적 생활에 시달리며 평생 사는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이들의 후손으로 태어나 힘겹고 어렵게 살아갈 자식들도 있을 것이다. 한편에선 오순도순 알뜰살뜰 다인종 다문화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시집오기 훨씬 오래전, 한국전과 월남전 그 전후에 주둔군 외국 병사와 한국 여인, 한국 병사와 베트남 여인 사이에 출생하여 장년이 되어도 평생 이방인으로 떠돌리며 사는 후손들도 있을 것이다. 그 모든 한국인들의 운명을 생각한다.

- 『고등학교 문학』

[다] 최근 ○○ 백화점에 제프 쿤스의 300억 원짜리 조각이 설치되었다. 100억~300억 원을 호가하는 쿤스의 조각은 이외에도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다. 외국 작가의 유명세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외국 작가의 작품은 수십, 수백억 원에 사면서 국내 작가 작품은 홀대하는 세대가 안타깝다. 자본 유입이 없는 국내 미술계는 생존 작가 중 순수 예술 작품이 1억 원을 넘는 조각가 한 사람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 자국 문화를 만드는 것은 고도의 감각과 지식이 필요하지만, 돈을 주고 외국 작품을 가져오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문화에서 벗어나 우리 미술을 만들고 우리 작가를 키우겠다는 관심과 의지만 있어도 세계화는 어렵지 않다.

- 『고등학교 사회』

[라] 근대화란 서구화와 거의 동일한 의미이다. 세계의 모든 사회는 모두 근대화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세계는 이미 근대화된 사회와 앞으로 근대화될 사회로 나눌 수 있고, 앞으로 근대화될 사회는 서구 사회가 앞서 걸어간 근대화의 길을 따라 걷게 된다. 제3세계 국가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근대적인 성격이 결여된 나라인데, 이미 선진화된 서구 자본주의의 근대적인 속성이 이들 나라에 확산된다면 근대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개발 도상국은 국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먼저 근대화된 선진 국가들이 이들 나라를 도와 개발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문제1] [나], [다], [라]의 주장이 [가]에 나타난 세 가지 태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설명하고, [나]의 입장에서 [다], [라]를 비판적 시각으로 서술하시오.

<10 ~ 12줄 (300 ~ 360자)> [2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재화나 서비스, 생산 요소를 필요한 곳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여기서 경쟁 시장은 참여자 간의 경쟁을 통해 이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하지만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서는 효율적인 배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데 경쟁 시장에서도 재화나 서비스, 생산 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외부성*이 존재하거나 공공재를 시장에서 공급할 때가 바로 그런 경우다. 우리는 이들 요인에 의해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켜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경우,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명분을 제공한다.

* 외부성 : ‘외부 효과’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서 ‘외부’라는 것은 시장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곳, 즉 시장 경계의 바깥쪽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외부성에 시장 원리가 적용되어 문제가 해결되면 이를 외부성이 ‘내부화’되었다고 한다.

- 『고등학교 경제』

[나] 주택가 한 가운데에 하루 종일 소음을 발생시키고 악취를 뿜어내는 화학 공장이 있다면 어떨까? 공장의 주인은 상품 생산으로 이윤을 얻을지 몰라도,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은 그로 인해 많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이웃집 마당에 있는 외등이 주변의 골목길을 환하게 비추어 준다면 어떨까? 밤늦게 다니는 사람은 그 외등 덕분에 보다 안전하게 밤길을 다닐 수 있을 것이다.

- 『고등학교 경제』

[다] 미래의 먹을거리를 책임질 ‘미래 산업 선도 기술 개발’ 5개 사업단이 본격 출범하였다. 5개 사업단은 글로벌 선도 천연물 신약, IT 융복합 기기용 핵심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전기차 기반의 그린 수송 시스템, 고효율 대면적 박막 태양 전지, 코리아 마이크로 에너지 그리드 등이다.

5개 사업단에는 중소·중견 기업 86곳, 대기업 37곳, 연구소 19곳, 대학 15곳 등 총 160개 기관이 참여한다. 각 사업단에는 3년간 600억~650억 원가량의 정부 지원금이 투자된다.

이와 같이 수익성이 낮고 때로는 윤리성 논란으로 선뜻 민간 기업이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 과학 연구는, 장기적으로 볼 때 기술을 발전시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정부가 직접 담당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연구에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 『고등학교 경제』

[라] 미용실 커트비, 자장면, 교복, 가전제품, 건설 공사, 음료, 약 조제, 라면, CD 금리 …… . 우리나라에서 담합이 이루어졌던 상품들이다. 구멍가게에서부터 세계적인 기업까지 째짜미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담합으로 인해 업체가 배를 불리는 만큼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공정 거래 위원회가 과징금을 물린 174건의 담합 때문에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15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해마다 소비자들이 2조 5,000억 원가량의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 『고등학교 경제』

[문제2] [가]에 제시된 시장 실패의 3가지 원인을 [나], [다], [라]에 적용하여 그 발생 이유를 설명하고, 정부가 개입하여 보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각각 서술하시오.

<13 ~ 15줄 (390 ~ 45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터넷 라디오 방송 대본 : 배경 음악이 그치고 출연자들의 대답이 시작된다.

김 기사 : 오늘은 우리들의 현실과 관련이 깊은 책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이번 도서는 제가 선정을 했는데 동질감까지 느낄 정도로 저에게 있어 중요한 소설이고, 제가 매우 좋아하는 소설 중 하나인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데미안”을 통해서 사춘기 소년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고, “젊은 날의 초상”과 “위대한 개츠비”를 읽으면서 좌절과 방황을 하며 성인으로 나아가는 성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는 더 이상 성장할 단계 없이 정체되고 멈춘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선정했습니다. 김사월 씨는 책에 대한 인상이 어떠셨나요?

김사월 : 이 소설이 사실 고등학교 때 많이 다루는 작품이잖아요. 여태 자세히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구보가 산책하는 곳이 종로 경찰서, 광화문 주변인데 제가 딱 야밤에 산책하는 코스예요. 그래서 더욱 몰입이 잘되었던 것 같아요.

김 기사 : 산책을 즐기시는 분이었군요.

김 감독 : 산책 좋죠. 밤길 위험한 것만 빼면. (웃음)

허 선생 :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재미있죠. 우선 그 안에 자기 독백처럼 주절주절 하는 이야기들과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이 겹치는 부분이 꽤 있잖아요. 소위 ‘못나고 우스꽝스럽다.’라고 해야 하나? 생각이 많고, 이래저래 혼자 번민하고, 혼자 걸어가면서도 무슨 패턴 같은 게 있잖아요. 출발지가 있고, 집을 나와 어떤 곳을 걸어가다 그곳에 멈춰서 무언가를 관찰하고……. 사람이건 사물이건 그것을 보고, 그것에 관한 생각을 주절주절 이야기하다가, 계속 생각하죠. 그러다 결론은 ‘나는 왜 이렇게 살지?’로 맺어지죠.

*학습 활동 : 출연진들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어떤 내용에 공감하고 있는가?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나] 석굴암의 구심점이 되는 것은 역시 본존불이다. 석굴암 본존불은 석가모니불이며, 모든 악마의 방해와 유혹을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석굴암 본존불의 광배*는 여느 불상들과 달리 신체 뒤쪽에 붙어 있지 않고 주실의 둥근 천장에 따로 조각되어 있다. 여기에 그려진 연꽃무늬가 위로 올라갈수록 크게 새겨진 것은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올려다보았을 때 완전한 동그라미가 되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때문이다.

주실의 천장은 돔 형식으로 네모난 돌을 짜 맞추어 둥근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는

지금도 까다로운 건축 기술을 필요로 한다. 신라인들은 네모난 돌을 맞대는 사이사이에 비너 모양의 돌을 췌기처럼 박아 가며 건축적 어려움을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췌기돌로 인해서 생긴 요철(凹凸)로 주실 천장을 우주 공간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도 얻어냈다.

돔의 천장 중앙에는 금이 간 연화문 지붕들이 보석처럼 끼워져 있다. 천장 지붕들을 안치할 때 천신이 도왔다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전해 온다. ‘석불을 완성하려고 큰 돌 하나를 다듬어 천장 지붕돌을 만드는데, 갑자기 돌이 세 토막으로 갈라졌다. 애통해하다가 옷을 입은 채 잠이 들었는데, 천신이 밤중에 내려와 다 만들어 놓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이루지 못할 일이었는데, 천신이 도와 완성할 수 있었던 석굴암! 석굴암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기적 같은 작품이라는 뜻이 아닐까.

*광배 : 회화나 조각에서 인물의 성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머리카락의 뒤에 광명을 표현한 원광

*학습 활동 :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으며 글을 읽는다. (설명문에서는 글 내용의 정확성에서, 논설문에서는 논리적인 주장 등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다.)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다] 숲에 가 보니 나무들은 / 제가꿈 서 있더군 / 제가꿈 서 있어도 나무들은 /
숲이었어 / 광화문 지하도를 지나며 / 숲한 사람들이 만나지만 /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 이 매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며 /
낮선 그대와 만날 때 / 그대와 나는 왜 / 숲이 아닌가

*학습 활동 : 독자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시의 상황과 분위기에 공감할 수도 있고, 시적 화자와 동일시하며 감동을 받을 수도 있다. / ‘나무’와 ‘숲’의 관계에 주목하여 위 시의 화자가 소망하는 사회의 모습을 말해 보자.

- 『고등학교 문학』

[라] 한 편의 아름다운 시는 그것을 향유하는 자에게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부끄러움을, 한 편의 침통한 시는 그것을 읽는 자에게 인간을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킨다. 소위 ‘감동’이라는 말로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심리적 반응이다. 감동이나 혼의 울림은 한 인간이 대상을 자기의 온몸으로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행위이다. 인간은 문학을 통해, 그것에서 얻은 감동을 통해, 자기와 다른 형태의 인간의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확인하고 그것이 자기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낀다.

*학습 활동 : 이 글을 참고하여 한 편의 시가 공동체 문화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

- 『고등학교 문학』

[문제3] 학습 활동을 참고하여 ‘공감’ 또는 ‘감동’의 측면에서 [가], [나]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30점), [라]의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다]의 시적 화자의 태도를 설명하시오(20점).

<21 ~ 23줄 (630 ~ 690자)> [50점]